

‘트로트계 대부’ 태진아, 올해 데뷔 50주년 향후 행보 기대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태진아(본명 조방현)는 ‘옥경이’ ‘사모곡’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겨울도 안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 ‘노란 손수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대부’로 불린다.

태진아의 이름은 당대 최고 인기 연예인들의 이름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배우 태현실의 ‘태’, 가수 남진의 ‘진’, 가수 나훈아의 ‘아’를 딴 것이다.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다. 생계를 위해 구두닦이, 중국집 배달원, 식당 종업원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만 했다.

태진아가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 손님



빌딩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6-35

으로 방문한 작곡가 서승일이 그에게 ‘목소리가 특이한데 직업으로 노래 한 번 해 보면 어떨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서승일의 사무실을 찾아가 가수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디뎠다.

이후 그는 1972년 ‘내 마음 급행열차’를

통해 가수로 데뷔했는데 이 곡이 생각보다 대중의 반응이 없어 방송 한 번 못해 보고 첫 앨범을 접었다.

태진아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이듬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다. 포기하지 않은 덕분인지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을 발표하며 1974년 연말 여러 방송사에서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또 관심은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발표한 ‘못 잊을 건장’ ‘잊지는 못 할거야’ ‘보내는 마음’ 등의 곡들이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했고 이에 갑작스런 미국 이민행을 택했다.

미국행은 태진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이곳에서 운명의 여인이자 아내가 될 이옥형씨를 만난 것이다. 이옥형씨는 태진아의 최초 히트곡 ‘옥경이’의 모태가 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국내 복귀 후 1989년 발표한 ‘옥경이’로 앨범 150만장 판매기록을 남기며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참고로 ‘옥경이’의 원래 제목은 ‘고향 여자’로 나훈아를 위한 곡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태진아가 곡을 받게되면서 성공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후 그는 ‘겨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 ‘동반자’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오랜 무명의 설움을 이기고 스타로 등극했다.

특히 1990년 ‘겨울도 안보는 여자’는 당시 최고의 가요 프로그램인 ‘가요 톱 10’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고 후속곡 ‘미안 미안해’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선희의 가방’ ‘노란 손수건’ ‘사모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록과 발라드가 주류였던 음반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1993년 태진아는 진ಾಗಿ획(진아엔터테인먼트)을 설립하고 음반제작자로 변신했다. 이때 영입한 첫 번째 신인가수가 ‘포기하지마’로 유명한 성진우다. 이후 배우 고(故) 김자옥도 가수로 변신시키기도 했다.

음반제작자로 변신한 뒤 잠시 공백기를 가진 그는 2000년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발표하면서 제 11회 서울 가요 대상에서 본상과 전통 가요상을 받았다. 또한 2014년에는 아들 이루와 함께 작사·작곡한 ‘동반자’가 큰 히트를 기록하면서 ‘전국 톱 10 가요 쇼’에서 무려 19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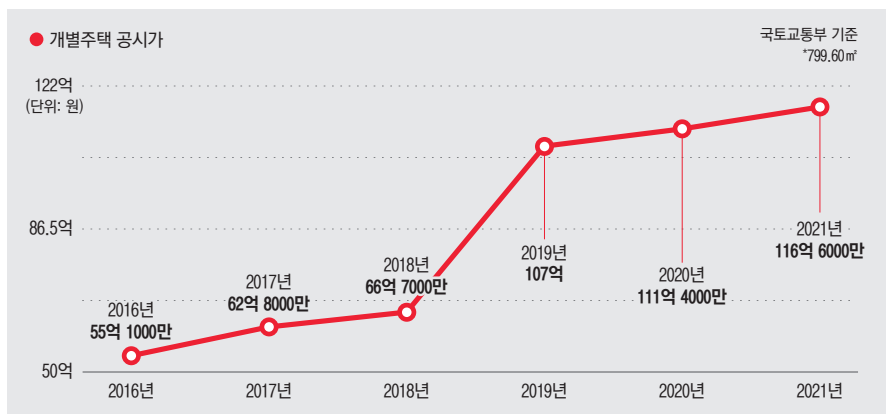
한편 지난 5월 태진아는 데뷔 50주년 기념 앨범 ‘공수래공수거’를 발표했다. 고(故) 이견희 삼성 회장을 떠올리며 썼다는 ‘공수래공수거’는 태진아가 작사하고 이루가 작곡했다. 여기에 국악을 접목시켜 응어리진 한의 슬픔을 극대화하며 대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데뷔한 지 반 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태진아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이동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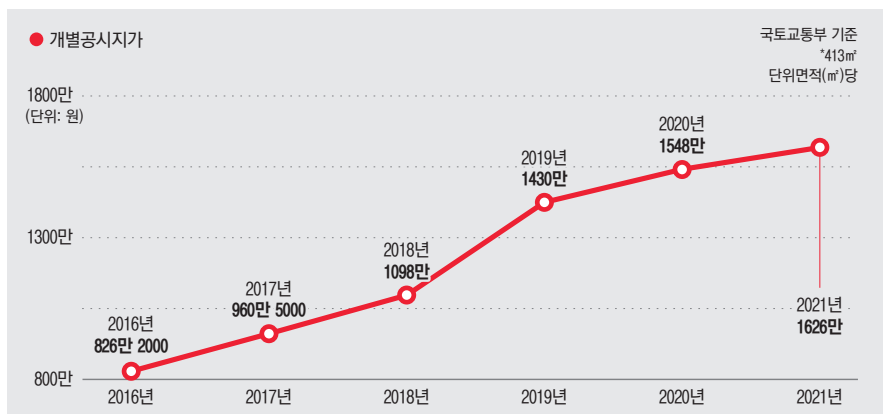


태진아(조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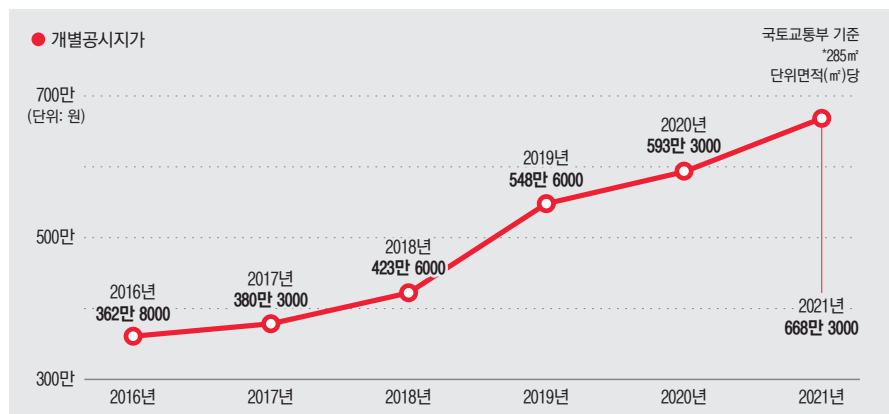
단독주택



빌딩



다가구주택 겸 빌딩



김희용



현)TYM 회장

김희용 TYM 회장은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경기 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상업디자인을 전공했다. 귀국 후 벽산그룹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에 투입돼 경영수업을 받았다. 이후 벽산그룹 기획감사실장, 인화산업 대회사 사장,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사장, 벽산그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희용 회장은 1960년 동양물산기업(현 TYM)을 창업한 이래 약 60년동안 농업기계화

를 통한 과학농업의 꿈을 실현시켜 한국 농업의 기계화를 이룩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벽산그룹은 1997년 김인득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그해 외환위기(IMF구제금융)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었지만 2002년 경영권을 되찾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기업인데 동양물산기업이 2004년 계열분리됐다.



김용우



현)배우

김용우는 서울연극학교 연극과, 서울예술대학교 공연창작과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연극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MBC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드라마 ‘제1공화국’을 시작으로 ‘이 깊은 밤의 포옹’ ‘제3공화국’ ‘굴합이 맞습니다’ ‘맥의 남편은 어머십니까’ ‘남자는 외로워’ ‘두아빠’ ‘강가에 앉아 울다’ ‘재동이’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이외에도 ‘금 나와라 뚝딱’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오자룡이 간다’ ‘내 사위의 여자’ ‘딱

너 같은 딸’ ‘편의점 셋별이’ 등에 출연하며 최근까지 다양한 연기를 선보였다. 처음에는 주연으로 출연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80년 MBC 방송연기상 남자신인상과 우수연기상, 1987년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2011년 MBC 드라마대상 연속극부문 남자 황금연기상 등이 있다.



홍장현



현)사진작가

고등학교 시절 운동을 좋아했던 홍장현 작가는 대학을 테니스 관련 학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 추천으로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대 후 주변 친구들이 패션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작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한 그는 김현성, 이진호, 안성진 어시스턴트를 거쳐 2003년 대학 동기 최용빈과 가운데 글자 한 글자씩만 용장관스튜디오를 오픈했다. 또한 가수 이효리와 인연으로 출연한 On Style

에는 ‘골든12’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송혜교·송중기 커플, 배우준·박수진 커플 등 톱스타들의 웨딩 사진을 찍으며 용장관스튜디오는 ‘사진사관학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보그, 엘르 등 국내외 잡지 커버 대부분이 홍장현 작가의 포토 작업을 거쳤을 정도로 국내 사진작가 중 이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를 통해 공개된 ‘BTS’ 뷔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2024년 준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는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제6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2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안 제6산단은 시와 주식회사 태영건설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풍세면 용정리 일원 96만6633㎡(약 29만 평) 부지에 약 367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9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제6산단을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지정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2020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부서)협의, 충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26일 최종 승인 고시했다.

제6산단은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제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국도 43호선지방도 629호선과 인접하는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여기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천안시

강소연구개발특구 확장을 통해 기술사업화지구 배후단지로서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전기, 전자, 금속, 자동차, 첨단식품산업 등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게 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생산유발액 약191억원, 약1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등 보상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산업단지와 더불어 민간과 2조 8817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약 852만㎡ 규모의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3만9000명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천안에는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승인돼 토지 보상 또는 착공 중이며 나머지 산업단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천안 남부지역 기존 풍세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와 풍세2일반산업단지를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지구’로 지정해 차세대 자동차 부품 핵심 거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호언덕빌딩촌지구 새뜰마을사업 완료… 새 관광명소 기대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는 2016년부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목호언덕빌딩촌지구 새뜰마을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목호언덕빌딩촌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시가 노후 건축물과 보행이 어려운 급경사, 소방도로 등 인프라가 미비했던 목호진동 계구석과 산재골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전국 공모사



목호언덕빌딩촌지구 새뜰마을 전경.

동해시

에 신청·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새뜰마을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3여원이 투입됐으며 △집수리 지원 43동 △경로당 및 카페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축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시설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여기에 경관도로 337m 신설과 사면보강, CC(폐쇄회로)TV, 보안등, 비상벨, 핸드레일 설치 등 해해위생·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했다.

시 관계자는 “목호언덕빌딩촌지구 새뜰마을사업 준공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입주 예정인 목호양 카페 등도 조성되어 별빛마을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내달 착공… 주민편의 증대 전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는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 업무를 원내 동 진잠새마을금고본점 건물로 임시 이전해 운영한다.

현재 진잠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되고 활용공간이 부족해 이용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내달 착공해 2023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현 위치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3591.8㎡, 연면적 2643.43㎡,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1층

에 민원실, 2층에는 회의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해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신청사는 전통있는 진잠동의 특색을 살리고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공간개방과 공유에 중점을 두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